





## 가장 좋은 시설만 모아 모아서

전체 면적 697.1km<sup>2</sup>로 서울보다 약간 큰 따라서 무척 작은 나라 싱가포르는 중국인이 전체 인구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말레이인과 인도인도 함께 어울려 살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탄탄한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음악 새싹들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탄 이들이 있다. 용시토 음악원의 교수들과 학장 진 에이큰이 그들. 교수로 재직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치안 조우와 피아니스트 토마스 헥트는 마스터클래스(6월 30일)와 연주회를 가졌다. 지난 7월 1일 문호아트홀에서 열린 연주회에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학장 진 에이큰을 만날 수 있었다.

용시토 음악원은 올해로 개교 5주년을 맞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음악학부에 속한 음악원이다. 전체 인원 약 200명의 작은 음악원이지만, 젊은 음악원인 만큼 알찬 계획과 포부로 꽉 차 있다. 세계 유수의 음악원들의 장점만을 모아 놓은 시설에서 소수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우수한 연주자로 키우는 것이 목표이기에, 앞으로도 학생 수는 지금과 같은 정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등록금 지원과 숙식 제공이라는 국립학교의 덕을 톡톡히 보는데다가, 졸업 후 피바디 대학원 과정 진학 시 혜택이 주어진다든 점 또한 이곳을 주목하게 한다.

“피바디 음악원과는 문을 열던 2001년부터 커리큘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진이 오가며 음악적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라며 학교의 장점을 소개하기 시작한 진 에이큰 학장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주목해 줄 것을 부탁했다. 레코딩 엔지니어 학과 개설이 바로 그것. 현재는 이색적인 학과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음악계에 반드시 필요한 학과가 바로 뮤직테크놀로지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학교에서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음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뮤직테크놀로지센터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할 것이고, 새로운 음악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그가 교수진과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한 방문 오디션에 가졌기 때문이다. 현재 용시토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은 서너 명 정도로 매우 적지만, 우리나라 학생을 유치하려는 음악원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에 대한 애착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방문 오디션을 여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 퍼져 있는 저명한 음악원들의 오디션은 그 음악원 안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타국 학생들은 정보를 빠르게 얻기 어렵다. 오디션에 참여하는 것 또한 시간과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게 작용한다. 용시토 음악원은 이점을 바꾸고 싶어 방문 오디션 제도를 만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대만·베트남·호주·러시아와 같은 나라의 학생들이 이러한 오디션 제도를 통해 용시토 음악원에 입학하고 있다. 또한 역사 짧은 음악원이기에 홍보를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작업이 필요하기도 했다.

내년 용시토 음악원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듯하다. 1월 오디션뿐 아니라 7월 음악 캠프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만 놓아 잘 기르자”와 같은 신념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글 김정은 기자(kimje@) 사진 박성윤

## **WITH THE BEST OF THE BEST FACILITIES**

from *Auditorium Magazine*

by Kim Jungeun

Singapore is a country with an area of about 677.1<sup>2</sup>km, a little bit bigger than Seoul – a very small country. 70% of the population is Chinese, living with Malays and Indians together in a multicultural society.

From Singapore, where there is a lot of support for the arts, the Director and a few professors from the Yong Siew Toh Conservatory of Music to Korea came to meet young, talented Korean music students.

The Yong Siew Toh Conservatory is a music depart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his young conservatory has about 200 students, a small conservatory but with big ambitions. Their goal is to make a small number of talented students into excellent musicians with the best facilities. So, the number of students will not change much. Because it is a national conservatory, the Conservatory support students with scholarships for tuition as well as board and room, and a stipend. After graduation students may apply for study further at the Peabody Institute in Baltimore, Maryland.

“The Yong Siew Toh Conservatory was established in 2001 in collaboration with the Peabody Institute of Johns Hopkins University. We have an exchange program with Peabody and the Conservatory involving both students and professors.” Dr. Aitken also wished to draw attention to a new project that is in the process of being developed already – the establishment of a degree in Recording Engineering. It is a new area but he thinks music technology is necessary in today’s music scene. “We will use a variety of technologies for our music program because I think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lso helps the development of music. We are now building a music technology center and this will be the best music technology center in Asia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new music.”

It is not the first time that Dr. Aitken has visited Korea. He visited both last year and this year. In addition, auditions were held this past January in Seoul. Just 3 or 4 Korean students study at the Conservatory now, but the Conservatory is trying to increase this number by having auditions in Seoul. But this is not just because they love Korean students. Getting information for many auditions for music conservatories in Europe and the US is not easy for foreign students, and going to the auditions is also not very cheap. But Yong Siew Toh Conservatory wants to change this system, so they created visiting auditions. The Conservatory gives audition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China, Taiwan, Vietnam, Australia, Russia, and through these auditions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are able to apply for the Conservatory. It is a young conservatory so they try to advertise as broadly as possible.

Next year they will have more active programs in Korea. They plan to hold auditions in January. In addition, they initiate a summer music camp in July in Singapore for talented Korean students. The Conservatory’s belief is like the old Korean phrase “one child, better upbringing”.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Yong Siew Toh Conservatory again in the future.